

## 조선후기 지식인의 생업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

- 19세기 白雲 沈大允의 경우를 중심으로

손혜리\*

<차 례>

1. 머리말
2. 조선후기 지식인의 생업에 대한 인식
3. 19세기 지식인 심대윤의 생계를 위한 대응과 내적 갈등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白雲 沈大允(1806~1872)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지식인이 학문과 도덕의 수양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상공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심대윤이 노모와 어린 두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목반을 만들고 약을 판 행적을 기록한 글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몰락한 처지이긴 하지만 명문 사대부가 출신으로 생계를 위해 직접 상공업에 종사한 데다 이를 기록으로 자세하게 남긴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출하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士의 정체성 상실로 인한 내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變通'의 논리를 제시하여 논리적 대응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조선후기 한 몰락 지식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대응과 그로 인한 고뇌와 갈등을 통해 인간적 초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조선후기 지식인, 심대윤, 생업, 인식, 현실적 대응, 갈등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BK21+연구교수

## 1. 머리말

조선후기에 들어와 봉당 정치가 변질되고 정치적 갈등이 첨예해진 결과 양반층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노론을 중심으로 한 一黨 專制化가 전개되면서 다수의 양반들이 몰락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시간이 점차 흐르며 양반의 권위와 위엄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조선은 士農工商으로 이루어진 철저한 신분제 사회다. 최상위층인 士는 학문을 연마하고 도덕을 함양하여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거나 향촌의 재지사족으로서 위상을 유지한다. 그런데 정쟁에 휘말리거나 또는 여러 대 동안 과거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사는 쇠락하여 사회경제적으로도 곤궁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18세기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광작이 유행하고 소작농이 늘어났다. 또 화폐를 사용하고 시장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상공업도 발달하였다. 그 결과 사회 계층 분화를 촉진시켜 경제력을 상실한 士와 삶의 터전을 잃은 民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이들은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자본이 없어 장사를 할 수 없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다. 약이나 목반을 만들어 팔고, 한강에서 얼음을 캐거나 광산에서 은을 캐며 심지어 매품을 팔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처럼 諸 분야에서 큰 변혁이 일어난 조선후기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士 곧 지식인<sup>1)</sup>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모색한 현실적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지식인의 생업에 대한 인식과 19세기 한 몰락 지식인의 생계를 위한 적극적 대응 및 그로 인한

1) 조선 시대의 양반은 신분을 뜻하며 士는 신분과 직업을 아우르는 의미인 만큼, 학문 연마와 심성 수양을 주로 하는 ‘지식인’이라 명명해도 좋을 듯하다.

고뇌와 내적 갈등을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 2. 조선후기 지식인의 생업에 대한 인식

조선 시대 신분 계급 중 農工商이 각각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며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것과 달리 士는 관직에 진출하여 恒産을 마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토지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닐 때이다. 조선후기는 극렬하고 잦은 붕당 정치의 여파로 정쟁에서 패하여 몰락하거나 여러 대 동안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경제적인 면은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그 심각성은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시문에서 곤궁함을 토로한 글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암담한 정황과 심경을 주로 읊고 있을 뿐, 현실적 처지에 대한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언급이나 대응책 및 해결 과정 등에 대한 기록은 드문 실정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생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을 통해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이며 무기력하거나 혹은 치열하게 노력하는 면모 등을 확인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조선후기 사의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 安貧樂道의 삶을 숭상하고 지향하던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예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그들이 직접 노동에 참여한 뒤 남긴 기록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한 뒤 다음 장에서 후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조선후기 대문호인 朴趾源(1737~1805)의 『許生傳』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작품이다. 주지하듯이 줄거리는 이러하다. 굶주림에 지친 허생의 아내가 글만 읽는 남편에게 장인바치 노릇이라도 하라고 하자, 허생은 애초에 배우지 않아 못한다고 대답한다. 장사를 권하자, 밑천이 없어 못한다고 말한다. 화가 난 아내가 그럼 도둑질이라도 하라고 하자, 허생은 그제서야 읽던 책을 덮고 변부자에게 가서 장사 밑천을 빌려 治産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토지가 없으니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인바치 노릇은 배우지 않았으며, 장사는 밑천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허생의 발언은 글만 읽고 생활력 없는 무능한 양반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여항시인 趙秀三(1762~1849)은 <吾柴>에서 “내 나무는 땀나무를 파는 사람이다. ‘나무 사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나무’라고만 한다. 심하게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외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리에 앉아 있다. 나무를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품 안에 든 책을 꺼내 읽으니 곧 고본 경서였다.”<sup>2)</sup>고 하였다. <오시>가 수록된 『秋齋紀異』는 추재 조수삼이 71명의 기이한 행적을 시로 쓰고, 그에 대한 并序를 시 앞에 서술하여 배경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을 간결하게 산문으로 설명한 책이다. 고본 경서를 읽을 정도이니 나무 파는 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땀나무를 판다는 것으로 미루어 현실적 처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나무를 팔면서도 결코 ‘사려’는 말을 못하고 대신 ‘내 나무’라고만 외칠 뿐이다. 이 작품은 생계를 위하여 마지못해 나무를 팔긴 했지만 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잃지 않고자 했던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심지어 양반의 체통을 지키다 굶어 죽은 이도 있다.

2) 趙秀三, 『秋齋集』권7, 『秋齋紀異』, <吾柴>. “吾柴, 賣柴者也. 不曰賣柴, 而但曰吾柴. 若甚風雪祈寒, 則循坊曲而叫, 餘時則坐街上. 適無來買者, 出懷中書讀之, 則古本經書也.”

昭義門 밖의 홍생원은 흠아비로 두 딸과 함께 살았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훈조막의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밥을 빌었다. 일꾼들은 저마다 한술 밥을 덜어 주었고, 홍생원은 겨자 잎사귀에 싸들고 가서 두 딸을 먹였다. 어느 날 홍생원이 또 밥을 빌러 왔을 때 훈조막 일꾼이 취중에 욕지거리를 해댔다. “홍생원은 도대체 훈조막 부군당이요? 우리들 상전 나으리요? 무슨 까닭에 날마다 와서 밥을 내라 해요?” 홍생원은 눈물이 글썽해져 돌아섰다. 그리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간 후 5,6일이 지나도록 사립문이 닫힌 채로 있었다. 한 일꾼이 사립문을 밀치고 들어가서 보니 홍생원과 어린 두 딸이 모두 누워 있는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 일꾼이 불쌍하여 급히 나와서 죽을 쑤어 가지고 갔다. 홍생원은 열 세 살 된 큰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애들아, 이 죽을 먹겠니? 우리 세 사람이 간신히 주름을 참는 데 몇새 동안의 공부가 있었다.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 앞의 공들인 것이 아깝지 않느냐? 지금 이 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저이가 계속 가져다준다면 좋겠지만, 내일부터 치욕을 어찌 다 당하겠느냐?”고 하였다. 홍생원이 말하는 동안에 다섯 살 된 딸이 죽 냄새를 맡고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었다. 큰딸이 동생을 따닥따닥하여 눕히면서 “자자, 자자.” 하고 달래는 것이었다. 이튿날 일꾼들이 다시 가 보았을 때는 모두 죽은 다음이었다.<sup>3)</sup>

정조 때 화가인 張漢宗(1768~1815)의 『禦睡錄』에 수록된 일화다. ‘홍

3) 張漢宗, 『禦睡錄』, 『洪生餓死』. “昭義門外, 有洪生員者, 鰥居有二女, 而貧不能生, 嘗乞食於嬾造幕諸役人處, 則役夫各收一匙飯而給之. 洪生以芥葉裹飼其二女. 一日生又來乞飯, 則役夫漢醉而辱之曰: ‘生員乃是燻造幕府君堂也, 吾輩之工曲子耶? 緣何日日討食.’ 生員含淚退去, 遂入其門, 過了五六日, 門扉常關. 一役夫推扉入居見之, 則生員與二女兒皆臥流淚而已. 役夫憐而急出煮粥以進之, 則洪生謂其十三歲長女曰: ‘汝等欲喫此粥耶? 吾三人艱辛忍飢, 此有六日工夫. 死將迫矣, 可謂前功可惜? 今食一器而彼人繼給則好矣, 奈此後日辱何哉?’ 如是酬酢之際, 五歲兒既嗅粥臭, 強記舉首. 十三歲兒以手押而臥之曰: ‘可宿可宿.’ 翌日役人等, 更往見之, 則皆死也.” 번역은, 이우성·임형택 역, 『이조후기 한문단편집』 (중), 『훈조막』, 일조각, 1978을 참조하여 운문하였음.

생원이 굶어 죽었다'는 이 비참한 사연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극도로 무기력했던 몰락한 양반의 처지를 인상 깊게 보여준다. 홍생원은 양반이라는 신분 의식 때문에 구걸하여 연명하던 삶을 버리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어수록』은 제목 그대로 잠을 쫓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구전되어 오는 淫談과 俗說, 笑話 등을 중심으로 엮고, 장한중 자신이 실제 겪은 일 중에서 勸懲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 썼다.<sup>4)</sup> 책의 성격상 홍생원이 굶어 죽은 일화의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일어났거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소재로 기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만큼 이 글은 조선후기 몰락 양반의 무기력한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상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거나 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화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극도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조선후기 몰락 양반의 실상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먹고 사는 것에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것인가? 혹은 물건을 만들거나 장사를 하는 등 상공업에 종사할 경우 법적인 규제라도 가해졌던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春秋穀梁傳』에 “古者有四民, 有士民, 有商民, 有農民, 有工民”이라 하였으니, 전통 사회의 직업은 흔히 士農工商으로 분화된다. 18세기 실학자 柳壽垣(1694~1755)은 양반이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에서 금한 적이 없으며 그들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후자의 주장<sup>5)</su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4) 김준형, 『閔淸齋禦睡錄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참조.

5) 柳壽垣, 『迂書』권1, 『總論四民 附金相埵甲申上疏』. “或曰: ‘兩班之農工商, 國家何嘗禁制之乎? 渠自不爲之耳.’”

양반이 賤業에 종사하면 국가가 영구히 廢錮하였으니, 이것이 禁制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만일 선비가 농공상업에 종사한다면, 그 교유와 婚宦에 장애가 없을 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반드시 저놈은 이미 평민이 되었다고 첫 마디를 던지면서, 비루하게 여기어 상종하지 않기를 엄하게 못할까 걱정하리니, 그 禁錮됨이 이에서 더할 수 있겠는가? 아! 국가가 명목으로는 양반을 우대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 손을 묶고 발을 매어 공공연히 배를 주리게 할 뿐이니,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병들게 하는 결과가 되었고 우대한다는 것이 바로 곤란케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는 일이며 자연의 도리이겠는가.<sup>6)</sup>

때로는 현실에서 성문법보다 불문법이 보다 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실제 법으로 금한 것은 아니지만, 교유와 혼인 및 관직 진출 등에 장애가 된다면 이러한 관습이 법으로 금한 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 그러니 아무리 곤궁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양반이 주변의 시선을 오롯이 무시한 채 농공상업에 종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위 흥생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주변의 시선도 문제지만 본인 스스로 양반이라는 신분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다. 따라서 흥생원은 남에게 구걸해 목숨을 연명하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18~19세기에 활동한 실학자 徐有渠(1764~1845)는 농공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사대부들을 비판하였다.

우리 동방의 사대부는 이들과 다르다. 10대조 이상에서 벼슬한 자가 한

6) 柳壽垣, 위의 글. “答曰: ‘兩班爲賤業, 則國家永錮之此, 非禁制者乎? 今使士族, 果爲農工商, 則交游婚宦, 其無妨碍之理乎? 人必首稱曰: ‘彼漢已夷於平民矣.’ 鄙而絶之, 唯恐不嚴, 其爲禁錮, 孰甚於此? 噫! 國家名雖曰: ‘優待兩班, 其實則維其手繫其足, 使之公然飢餓而已, 愛之, 適所以病之, 優之, 適所以困之也. 此豈順理之事, 自然之道乎?’”

사람이라도 있으면 魚와 魯자도 구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진 무식쟁이라도 손에 쟁기와 따비를 잡지 않는다. 한갓 문벌만을 빙자하여 공업과 상업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보고 들은 것이 습속에 고착되고 근골이 안일함에 젖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메뚜기처럼 곡식을 축내는 생활을 하며 피가 잘 맞았다고 여긴다. 100가구가 모여 사는 향촌의 취락에는 이러한 부류가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 곡식을 생산하는 사람은 적는데 먹여 치우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빨리 만들지 않는데 사용하기는 천천히 하지 않는다. 조선이 천하의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은 당연한 형세다. 이러한 풍속을 변화시켜서 공인을 소통시키고 상인에게 혜택을 베푸는 일은 재야에 문헌 사람이 참여하여 계획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는 일 없이 밥 먹는 것을 경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세상의 군자들이 기계를 만들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리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sup>7)</sup>

이 글은 사대부들이 기계와 도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용후생할 것을 권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하는 일 없이 밥을 먹는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문벌을 숭상하여 농사는커녕 상공업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사실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유수원이 양반이 농공상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실을 조목조목 말했다면, 서유구는 습속에 고착되고 안일함에 젖어 곡식이나 축내는 사대부들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심지어 魚魯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식한 이가 10대 조 이상에서 벼슬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결코 농

7) 徐有渠, 『林園經濟志』, 『瞻用志』권4, <論士夫宜留意工制>. “我東士夫異於是, 十世以上一有冠冕, 則目不辨魚魯, 手不執耒耜, 而徒藉門閥, 恥言工商. 聞見痼於習俗, 筋骸狃於放逸, 以不動一指, 空蝗黍粟爲得計. 鄉野百家之聚, 若此類殆過半焉. 生之者寡, 食之者衆, 爲之不疾, 用之不舒, 爲天下之貧國, 固其勢耳. 變風易俗, 通工惠商, 固非在野者之所與謀. 而余願世之戒素餐知慚愧之君子, 少留心於便器利用之道.” 번역은 서유구 지음, 안대희 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장인의 교육』, 돌베개, 2005를 참조하여 윤문하였음.

사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사대부들의 허세를 꼬집었다.

19세기 중후반에 활약한 중인 학자 崔瑄煥(1813~1891)은 당대 정치·경제·사회적 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顧問備略』에서 신분과 직업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李瀼(1681~1763)의 재종손이자 역시 실학자였던 李重煥(1690~1756)은 사농공상의 네 부류를 신분이 아닌 직업으로 보고, 벼슬하지 못한 선비는 농공상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일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8)</sup> 최성환은 이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양반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농공상의 신분에 따른 직업 제한을 철폐하여 양반도 오로지 관직 진출만을 위해 평생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농업·상업, 기타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여 스스로 恒産을 창출하게 하고, 농공상만도 능력과 자질만 있다면 얼마든지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고 하였다.<sup>9)</sup> 『고문비략』은 행정과 경제에 있어 탈성리학적·탈중세적 경향을 나타내며, 종래의 실학사상이 최성환에 이르러 개화사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시민적 사고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는 책이다.<sup>10)</sup>

이처럼 조선후기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난 결과 기왕의 농업 중심 경제에서 상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8) 李重煥, 『擇里誌』, 『四民總論』. “古無士大夫皆民也 民有四 士賢而有德 國君仕之不仕者 或爲農爲工爲賈……是以不仕於君 當歸於農工賈之民.”

9) 崔瑄煥, 『顧問備略』, 『人材』. “此先王制士處民, 富以教之之大略也. 今亦依富而教之之法, 凡官人, 必以前所論選舉人中取用, 餘皆歸農歸商歸傍歧, 則生業苟矣. 更自農自商自傍歧而才德并修, 有可稱, 則自應鄉舉得薦, 可以出而仕矣, 否則還是農商傍歧而生業也. 然則仕宦者, 未必盡貴族, 農商傍歧者, 未必盡寒族也. 於是人皆有恒産有恒心, 貴族寒族并無所苦, 而又贏得人材苑興, 國受其利矣.” 김성재, 『어시재 최성환의 고문비략 해제』, 『어시재 최성환의 고문비략』, 사람의무늬, 2014, 20면 참조.

10) 이우성, 『實學思想의 開化思想으로의 轉廻: 최성환의 『顧問備略』을 中心으로』,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37, 대한민국학술원, 1998, 227~230쪽 참조.

직업군이 발생하는 등 근대를 향한 도도한 물결이 세차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몰락한 일부 지식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이며 무기력한 실상을 확인하고, 생업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이제 생계를 위해 직접 노동에 뛰어들 이들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들이 체험한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곤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모색 및 그로 인한 심적 갈등이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된 기록이 있어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3. 19세기 지식인 심대운의 생계를 위한 대응과 내적 갈등

#### 1) 우환과 곤궁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극렬하고 잦은 정쟁에서 패하여 몰락하거나, 당시 만연했던 과거 시험의 부정 등으로 인해 응시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는 응시하긴 했지만 여러 대 동안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여 심각한 곤궁에 처한다 하더라도, 양반이라는 신분 의식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부분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임노동을 하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한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의 현실적 처지와 대응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眷彼老秃翁, 저 늙고 머리 빠진 늙은이  
不憚爲人雇. 남을 위해 품팔이 꺼리지 않는구려  
巡日取其直, 종일 품판 샀 가지고

八口延一縷. 여덟 식구 입에 겨우 풀칠하는구나  
 不謀調寒暑, 추위며 더위조차 가릴 여유 없는데  
 何暇避風雨. 어느 겨울에 비바람인들 피할 건가?  
 一日暫休力, 하루라도 잠시 쉬노라면  
 寒餓無所訴. 춥고 배고픈 사정 호소조차 할 곳 없으리  
 此翁本志士, 이 늙은이 본래 지사여서  
 少年稱器宇. 소싯적엔 크게 될 인물로 칭송되었더라  
 經綸無所施, 경륜 펼칠 곳 없었으니  
 高潔誰能數. 고결을 누가 헤아리리?  
 落拓遂如此, 이같이 낙척하였지만  
 豈才無足取. 어찌 재주인들 취할 것이 없으랴?

韓益相(1767~1846)의 『悲雇人』이다. 그의 자는 稚文, 호는 自娛·百拙이며 본관은 淸州다. 1807년(순조 7)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正言·右副承旨·江原道觀察使 등을 역임했다. 문집으로 『自娛』 6책이 전한다. 이 시는 5언 고시 30구로, 한 老秃翁의 고단한 삶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9구인 ‘이 늙은이 본래 지사여서(此翁本志士)’를 통해 노독옹이 양반 신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몰락하여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촉망받던 양반인 그가 생계를 위해 품을 팔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는 『비고인』의 전반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8구는 노독옹이 품을 팔아 여덟 식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9~14구에서는 지금은 늙고 쇠락하여 먹고 살기 위해 雇人이 된 처지지만, 본래 재주 있는 志士로 경륜을 펼칠 포부를 품은 적도 있었음을 회고하며 씩씩한 심경을 토로하였다. 權攄(1713~1770)과 洪愼猷(1724~?)도 각각 『雇人行』과 『牛車行』에서 임노동자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民이 주인공인 것에 반해 『비고인』의 대상은 몰락 양반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19세기를 살다 간 몰락 양반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연전에 나의 아우 태경과 익경이 어머니를 모시고 안성의 가곡에서 지냈  
다. 그때 흉년이 거듭되어 봉양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마침 통영의 장인  
이 와서 마을에 세를 들어 살면서 목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태경이  
간간이 가서 눈여겨보고 돌아와 익경과 함께 그 제작 방법에 의거해서 목반  
을 만들어 가지고 곡식으로 바꾸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이듬해에는 풍년  
이 들어서 어머니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셨고, 두 아우 또한 목반 만드는 일  
을 그만두고 다시 글을 읽었다. 이윽고 우리 형제들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데 백가지로 도모했던 일들 중에 하나도 이룬 것이 없었다. 더구나 세상길의  
험난함에 신물이 나서 사람들과 접촉할 마음도 사라졌다. 그래도 늙으신 어  
버이와 가난한 집안 형편을 생각하니 힘껏 일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여겨졌다. 이에 아우들과 의논하기를, “군자는 궁하면 비천한 일  
을 행할 수 있거니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재물이  
없으니 장사를 할 수도 없고, 토지가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목반을  
만드는 것은 천한 일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남에게 관여되  
는 바 없으며, 농사일이나 장사치처럼 피약벌에서 땀을 흘리거나 장터에서  
분주히 이익을 노리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태경은 가곡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자신은 나를 따라 읍내로 들어와, 익경과  
함께 한 집에 모여 살면서 공방 일을 시작했다. 태경은 기술이 가장 우수했  
으며, 익경은 그 다음이었고, 나는 솜씨가 없어 옆에 앉아서 쉬운 일을 거들  
기도 했다. 장인바치 일은 몸은 비록 고되지만 마음은 한가로워서, 일이 없  
을 때는 곧바로 경사를 토론하며 깊은 의미를 강구할 수 있었다.<sup>11)</sup>

11) 沈大允, 『白雲文抄』권1, 『治木盤記』. “往年, 余仲弟泰卿與益卿, 奉母夫人, 居于安城之佳谷. 時值荐荒, 無以爲養, 適有統營之匠者, 僦居里中, 業木盤焉. 泰卿間

19세기 지식인 沈大允(1806~1872)의 『治木盤記』이다. 심대윤의 자는 晉卿, 호는 白雲·石橋이며, 본관은 靑松이다. 영조 때 영의정을 역임한 沈壽賢(1663~1736)이 그의 고조부이다. 심수현은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첫째가 문인 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沈鎭(1685~1755)이며, 둘째는 부제학을 지낸 沈錕(1702~1755)이고, 막내는 교관을 지내다 젊어서 죽은 沈鉞(1722~1752)이다. 심대윤의 부친 完倫(1778~1833)은 심확의 손자인데 심발의 후사로 출계하였다. 이처럼 그의 가계는 쟁쟁한 문한가이자 문벌가였으나, 1755년(영조 31) 을해옥사에 심확이 반역자란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면서 폐족이 되고 만다.<sup>12)</sup> 이러한 가문적 배경을 지닌

---

往見之, 歸與益卿依其制樣而造作, 易米菽以供親. 明年歲則豐熟, 母夫人還就于余, 二君亦輟其工而讀書焉. 既而, 余昆季年齒加長, 百計而不一遂, 益厭世路之艱險, 意不欲酬接物情, 而念親老家貧, 貴其力作而治生. 乃相與謀曰: ‘君子, 窮則可以爲鄙汚, 而不可爲不義. 今我無財不可商, 無田不可農, 而木盤賤工也, 然作於室中, 無干於人, 其諸農商之暴露夏畦, 奔走隴斷, 爲較勝焉.’ 於是, 泰卿置其妻孥於佳谷, 身從余于邑, 及益卿聚居一室而興工役. 泰卿爲最善, 而益卿次之, 余未能者, 而從傍坐, 擇其易者而助之. 工筋力雖勞動而心閒, 無事, 輒討論經史, 講求精義.” 이후 소개할 심대윤의 글은, 성균관대 임형택 명예교수가 주관하여 번역하고 출간할 예정인 『백운 심대윤의 백운문초』(실시학사 고전번역총서, 사람의무늬, 근간)를 참조하였다. 필자도 이 번역 작업에 참여하여 심대윤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학의 정수를 감상한 바 있다.

- 12) 을해옥사는 영조와 집권 노론에 의한 강경파 소론(峻少) 숙청작업이었다. 경종을 승계하여 왕위에 오른 영조는 태생적 업보를 지녔던 셈이다. 경종 재위기간에도 현왕인 경종을 옹호하는 소론·남인과 뒤에 영조가 된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 사이의 갈등으로 신임옥사가 일어났다. 영조 즉위 초기에 발발한 무신란은 왕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영조는 자신이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론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서 탕평책을 폈다. 심대윤의 고조부 심수현이 영의정으로 활동한 것은 이 과정에서였다. 그러나 영조는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국시로 확정짓기 위해 1741년에 이른바 大訓이란 것을 반포하여 원칙을 세우고도 14년을 기다려서 을해옥사의 대규모 숙청작업을 마친 다음에야 겨우 국시를 확정지었다. 영조는 이에 앞서 소론측에 대한 회유공작을 벌였다. 소론측 주요 인사들에게 自辨疏라는 반성문을 써서 바치도록 한 것이다. 대체로는 자변소를 올려서 관용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한 인사들이 있었으니 준소로 분류되는 강경파였다. 이때 심확은 준소로서 죽임을 당하였

심대운은 평생 동안 출사하지 못한 채 학문에만 치력한 결과 『福利全書』와 『閒中隨筆』을 비롯하여 경학과 역사에 관한 저술을 110여 책이나 남김으로써 19세기 학술사에 일획을 그었다.

위의 글은 을사년(1845) 심대운의 나이 40세 때 지은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1833년(순조 33)에 부친이 죽자, 가장으로서 모친과 동생들을 거느리게 된다. 그리고 “임인년에 우연히 고질병에 걸려 人事도 끊어버리고 의원과 약으로 치료한 뒤 수개월의 시간을 내어 『주역』을 읽게 되었다.…… 우환 속에서 태어나고 곤궁한 데서 자라 세상을 깊게 생각하였으므로 일찍부터 苦心積慮하여 사물의 실정을 볼 수 있었다.”<sup>13)</sup>고 하였으니, 임인년(1842)은 그가 37세 되던 해이다. ‘우환 속에서 태어나고 곤궁한 데서 자랐다’는 말은 그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울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30대 후반에 노모와 두 동생을 데리고 安城의 佳谷으로 이사하였다. 당시 안성은 수공업이 발달하고 교역이 가장 성행했던 곳 중의 하나로, 심대운의 선대로부터 연고가 있던 곳이기도 하였다.<sup>14)</sup>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안성으로 이주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형제들과 목반을 만든 것이다. 을사년 즉 1845년에 쓴 글에서 “집이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할 길이 없기에 우리 형제가 함께 목반을 만들어 팔아 조석의 생계를 삼았다. 3년을 밖에 나가지 않고 부지

---

으며, 노론집권이 장기화한 정치 상황에서 신인이 될 수 없었다. 심대운의 생애와 가계에 대해서는, 장병한, 「심대운 경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5, 8~13면; 진재교, 「심대운의 사회적 처지와 학문 자세」, 『한문교육연구』16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375~376면; 임형택, 「심대운전집 해제」, 『심대운전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4~5면 참조.

13) 沈大允, 『韓國經學資料集成』, 『象義占法』, <周易象義占法自序>. “歲壬寅偶嬰沈痾, 屏絕人事, 而醫藥之餘, 有數月之暇, 因得讀易.…… 惟其生於憂患, 而長於困窮, 頗深於世, 故亦嘗苦心積慮, 竊有見於事物之情.”

14) 진재교, 위의 논문, 384면 참조.

런히 일을 하느라 꽃 피고 버들개지 날리는 봄에도 놀러 나갈 겨를이 없었다.”<sup>15)</sup>고 하였으니, 대략 37세 때 가곡으로 이사오면서부터 목반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이 없어 장사할 수 없고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밑천이 필요치 않는 데다 손재주가 있던 이들에게 목반을 만들어 파는 것은 현재의 곤궁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었던 것이다. 泰卿은 심대운의 형제 중 셋째인 沈宜來(1812~?)이며, 益卿은 넷째인 沈大時(1817~1866)이다. 목반을 만들어 팔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절박한 심경이 잘 드러난다.

다음 글은 「送仲弟泰卿之黃澗伐盤材并序」이다. 둘째아우 태경이 목반 재목을 베러 황간으로 가는 것을 전송하며 쓴 글로, 심대운 형제가 목반을 만드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목반을 제조하자면 둘레가 한 아름 두 뺨 이상은 되는 큰 나무라야 쓸 수 있다. 그리고 木性이 견고하면서 매끄럽고 유연하면서도 질겨야만 양질이라 할 수 있다. 태경이 이웃에 사는 張生과 함께 300여 리를 가서 황간의 물한산 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어다가 역새풀을 엮어서 움막을 만들고 임시 거처를 삼았다. 직접 밥을 지어 염장을 반찬으로 삼아 먹었다. 인가로부터 20리나 떨어져 깊은 계곡의 나무 숲 가운데 있어서 짐승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인적이 딱 끊긴 속에 낮에는 그늘에서 톱질하고 밤에는 관솔불을 밝히고 자귀질하여 상판이 다듬어지면 일꾼을 사서 집으로 내려 보낸다. 나와 막내아우 익경은 집에 있으면서 버드나무를 베어 변과 다리의 재료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인하여 태경의 착하고도 능력 있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감격하여 시 한 편을 짓는다.<sup>16)</sup>

15) 沈大允, 『白雲遺草』. “家貧無以養, 兄弟共作木盤, 賣之以爲朝夕之具. 三春閉門疾作, 未暇遊賞花柳.”

16) 沈大允, 『白雲遺草』, 「送仲弟泰卿之黃澗伐盤材并序」. “造盤, 須用大木徑一抱二圍以上, 木性堅而滑, 軟而紉, 乃爲良. 泰卿與鄰居張生, 行三百餘里, 入黃澗之物

목반을 만들기 위하여 아우 태경이 나무를 채집하는 과정 및 자신과 막내아우 익경의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목반용 나무의 크기와 재질, 그리고 나무를 채집하기 위해 집을 떠나 깊은 산 속에서 짐승의 위협을 받고 직접 밥 지어 먹으며 밤낮으로 톱질하고 자귀질하는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눈길을 끈다. 위협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동생에 대한 고마움과 안쓰러움이 잘 드러난다. 이어지는 시는 목반을 만들게 된 상황과 과정, 아우 태경에 대한 애뜻한 마음, 목반을 만드는 마음가짐 등이 차례로 형상화되어 있다.

家貧養老母, 가난한 살림에 노모를 봉양하느라  
 苦無擔石儲. 저장한 곡식이 없어 괴로웠어라  
 賣盤供滫瀡, 목반을 만들어 지공을 하여  
 不負聖賢書. 성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노라  
 入山三百里, 삼백 리나 떨어진 산중으로 들어가  
 屢經虎豹廬. 호랑이도 종종 만나는 심심산골에서  
 辛勤伐盤材, 온갖 고생 다 하여 목반의 자재를 구하느라  
 踰月未歸歟. 달포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念弟勞遠役, 아우가 멀리 가서 수고하는 것을 생각하면  
 兄豈獨逸居. 형이 어찌 홀로 편안히 지낼 건가  
 終日事斤斲, 종일토록 자귀질 하느라  
 筋力不敢餘. 근력을 남기지 않고 다하네  
 守分甘丘壑, 분수를 지키며 초야의 삶을 즐기고  
 百年謝簪裾. 평생토록 관작은 구하지 않네

閑山中，斬木編荻爲窟室而廬焉。躬執爨，佐以鹽醬而食之。去人家二十里，杳然處乎林薄巖谷之中，禽獸之聲四合，人烟迥絕，晝則就陰而引鋸，夜則燃松而斲之。盤材成，則雇丁擔以送之家。余與益卿在家，伐柳木爲辨與足，因感泰卿之賢能刻苦乃爾，輒作一篇。”

既無濟物功, 이미 부를 이룰 길이 없음에  
 食力宜勤渠. 노동하여 밥을 먹자면 의당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리  
 時運適不偶, 時運을 만났다 하지 못해도  
 作計未爲踈. 생계를 위한 대책 성글다 하지 못하리라  
 爲善且無愧, 우리 하는 일은 착한 일ियो 부끄럽지 않으니  
 安用求時譽. 어찌 시속의 명예를 추구하라

5언 고시 20구로, 내용상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4구는 가난한 살림에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목반을 만들어 팔게 된 상황을 그렸고, 5~8구는 목반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구하기 위해 아우가 먼 길을 떠나 깊은 산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9~12구는 고생하는 아우를 생각하며 심대운 자신도 온 힘을 다해 종일토록 일하였다는 내용이며, 13~16구는 벼슬을 구할 방도가 없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17~20구는 생계를 위한 대책을 부지런히 세우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천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노모 봉양을 위해 삼형제가 목반을 만들어 파는 것에 대해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서술한 시다. 관직에 진출하거나 또는 농사짓고 장사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번 돈으로 노모와 형제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은근히 표출되어 있다.

숨어 살며 뜻을 지키고 힘을 다해 아버이를 봉양하니, 어질도다! 어진 일 인즉 비천하고 욕되다 해서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나는 평소애 일찍이 정신과 육신을 수고롭게 하여 세상을 구제할 공로가 털끝만큼도 없었거늘, 사십년 동안 배에 곡식을 채우고 몸에는 옷감을 걸친 채 살아 왔다. 항상 안절부절 부끄럽고 겸연쩍어 마음에 스스로 천지간의 한 도둑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두 아우를 따라 이 일을 하고부터는 내 마음이 약간은 편안해져

부끄러움이 가셔졌다. 무릇 일이란 크고 작고 간에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 공으로 먹게 되는 것이 귀함은 마찬가지이다.<sup>17)</sup>

사물의 귀천은 일정하지 않아 때에 따라 귀할 때는 귀하게 되고 천할 때는 천하게 되는 법이다. 선비는 옛날엔 귀한 존재였는데 지금에는 천하게 되었으니, 또한 어찌 장인이 지금엔 천하게 여겨지지만 후세에 귀하게 되지 않을 줄 알겠는가? 선비와 장인은 모두 지금 천하게 여겨지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 사물은 천함이 극에 다다르면 도리어 귀하게 되는 법이라, 어찌 애달파하리오?<sup>18)</sup>

각각 심대운과 그의 아우 익경 심대시의 말이다. 두 사람 모두 노동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심대운은 목반을 만들어 파는 것이, 당대의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천하고 욕된 일이지만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40년 동안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음식을 먹고 옷을 입은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도둑이라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 극도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득이 아우들과 함께 목반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부터 도둑질하는 듯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여, 땀 흘린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17) 沈大允, 위의 글. “隱居而遂志, 竭力以養親, 賢乎哉! 賢矣則奚傷乎其汗辱也? 吾平生未嘗勞心費力有毫髮濟物之功, 而穀腹絲身者, 四十年矣. 恒覺慙愧, 自以爲天地間一穿窬耳, 得從二君而爲是役, 吾心少安而無愧. 夫事無巨細, 其貴自盡而食功一也.”

18) 沈大允, 위의 글. “物之貴賤無常, 時貴則貴, 時賤則賤. 士者古之所貴而今之所賤也, 又安知匠者之不爲今之所賤而後之所貴耶? 且士與匠, 俱爲今之所賤, 而我兼爲之. 物賤極則反貴, 又何戚焉?”

심대시는 조선 시대 신분 중 가장 높은 선비와 가장 낮은 장인의 가치를 비교하여 후세에는 장인이 귀한 신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의 말처럼 훗날 장인은 사회적 신분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뛰어난 재주를 소유한 이들은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금은 몰락한 士의 처지로 장인바치 노릇을 하며 미천하지만, 언젠가는 선조가 신원되어 자신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할 것이라 희망하였다. 미래에 대한 낭만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고자 한 것이다. 이후 심대운은 약을 팔기도 하였다. 다음은 鄭基雨(1832~1890)의 『雲齋遺稿』에 수록된 글이다.

임자년 스무 한 살 때 안성의 동리에 사는 백운 심선생을 방문하였다. 선생은 문장과 식견이 천고에 빼어났고 산림에서 도를 지키면서 약을 팔며 은 거하고 있었다. 공이 가서 방문하였는데, 심공의 논의는 대개 고경과 합치되지 않았다. 공이 이 때문에 반복해서 논란한 서독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 이치에 닿고 조리가 펼쳐져서 편편마다 외울 만 하였다. 심공은 성격이 곳곳하여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드물었는데 오직 공에 대해서만은 망년지교를 하였다.<sup>19)</sup>

정기우의 연보를 기록한 것인데, 임자년이면 1852년이니 정기우가 21세며 심대운이 47세 때의 일이다. 정기우는 본관이 동래로, 鄭萬朝(1858~1936)의 부친이자 鄭寅普(1892~?)의 조부이다. 이 무렵 심대운은 안성의佳谷에서 읍내인 東里로 이주하여 약을 팔았던 모양이다. 37세에

19) 鄭基雨, 『雲齋遺稿』권2, 「附年譜」. “壬子, 二十一歲, 訪沈白雲先生于安城之東里. 先生文章識見, 卓跌千古, 守道林泉, 賣藥而隱. 公往訪之, 沈公論議, 多與古經不合. 公以是, 反覆論難, 書牘甚多, 皆理達條暢, 片片可誦. 沈公, 性傲亢, 罕與人接, 獨於公, 忘年交.”

모친과 두 동생을 데리고 서울에서 안성으로 이주한 이후 죽 이곳에서 살며 공방을 차려 목반을 만들어 팔고 약방에서 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심대운은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 곤궁에서 탈피하기 위해 상공업에 직접 종사하였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노모와 가족을 부양한 것에 대하여 기쁨과 자부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 2) 명분과 실상의 괴리에서 온 내적 갈등

이 지점에서 사농공상의 엄격한 신분체제 아래 양반이 먹고 살기 위해 물건을 만들거나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던 시절, 목반을 만들어 팔고 약을 팔던 것에 대한 심대운의 속내가 자못 궁금해진다. 그는 노동의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하지 않고서 먹고 산 지난 세월 동안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고백한 만큼, 직접 상공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에 대한 속내는 과연 어떠한이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장문의 편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본디 나약하고 범상한 성격인데도 先人の 유업을 계승하려고 해서, 처음부터 농사와 장사, 수공업 같은 일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문학에만 힘쓰고 다른 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근래 나이가 좀 들고부터 집안의 경제력이 점차 쇠락해지는 것을 보니, 양친은 노경에 이르렀는데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함께 부모를 봉양하고 가문을 보존할 길이 없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문득 이 일이 생각나면 곤장 옷을 걸치고 방안을 빙빙 돌며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읍내로 들어갈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남의 집에 우거하며, 밥을 부쳐 먹고 단 맛 쓴 맛을 골고루 맛보며 장사꾼의 무리에 끼어서 이익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썩은 땅과

쓰레기 더미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져 남에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던 까닭은 한 푼 두 푼의 이득이라도 얻어서 하루나마 부모를 봉양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sup>20)</sup>

이 글은 『與柳君夏元書』로, 심대윤이 평생 동안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후배이자 친구인 柳夏元(?~1843)에게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조언을 구한 글이다. 유하원의 이름은 榮健으로, 하원은 자이다. 문학에만 전념하고 싶었으나, 부모는 늙고 동생들은 어린데 집안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자 부득이 안성 읍내로 나가 장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정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분노와 쓰레기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사람들에게 모욕 받는 현실은, 깨끗한 성격의 소유자인 심대윤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연로한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자신을 모두 내려놓았기에 가능했을 터이다. 그럼에도 그의 내적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간다.

제가 듣기로 옛날의 군자 중에는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치욕스런 일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문을 지키는 것은 천한 직업이요, 채찍을 들고 말을 모는 것도 욕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한 선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嗟來之食은 먹지 않으며, 아무리 목이 말라도 盜泉의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고 할 것입니까? 또한 나는 비록 둔한 사람이지만 일

20) 沈大允, 『白雲文抄』권2, 『與柳君夏元書』, “僕素以怯懦庸陋, 承先人緒業, 生而不識耕種販粥奇巧之事, 專精於文學, 不遑外慕, 于茲有年矣. 頃者稍壯, 見家力漸以旁落, 伏念兩親垂老, 而兄弟未成, 恐無以相養以保存. 時方寢臥, 忽念此事, 卽攝衣遶壁, 達朝不寐. 遂決入邑之計, 僑居寄食, 備嘗甘苦, 而爭利於屠賈之伍. 僕所以自投於糞土汗穢之中, 以受人之恥侮而不顧者, 冀得錙銖之贏, 以及一日菽水之歡.”

찍이 군자의 행실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고, 타고난 성품도 엄격하고 너그럽지 못해 구차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제 자신이 일을 맡아 한 지 3년 이래로 죽이나 쌀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맹추위에도 옷을 입지 못한 채 밤새도록 신음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애달파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지키는 바가 있어섭니다.<sup>21)</sup>

『孟子』에서 “가난 때문에 벼슬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집안이 가난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높은 자리나 녹봉이 많은 것을 사양하고 문지기나 순라꾼 같은 일을 해야 한다.”<sup>22)</sup>고 하였으며, 『論語』에서는 “만약 부가 추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내가 하겠지만, 만일 추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sup>23)</sup>고 하였다. 『禮記』에 “제나라가 큰 흉년이 들자黔敖가 노변에다 밥을 지어 놓고 주린 자들을 먹여 주었는데, 주린 자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지척지척 오는 것이었다.黔敖가 왼손에 밥을 들고 오른손에 마실 것을 들고서 ‘불쌍하구나, 와서 먹어라.’고 하니 그 사람은 눈을 치켜 뜨고 보며 ‘내가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쫓아가서 사과했으나 끝내 그 사람은 먹지 않았다.”<sup>24)</sup>는 말이

21) 沈大允, 위의 글. “僕聞古之君子, 有辱身汙行而爲貧者. 故抱關賤職也, 執鞭辱行也, 尙以爲之. 然廉潔之士, 飢不受嗟來之食, 渴不飲盜泉之水. 是二者, 孰賢而孰否邪? 且僕雖疲駑, 亦嘗側聞君子之操行矣, 性復峻潔狹隘, 不耐苟得. 自家任事以來三年, 鹽粥糟糠不充, 盛寒無衣, 通昔呻吟. 然不以是爲戚者, 亦有所自守也.”

22) 『孟子』, 『萬章』. “爲貧者, 辭尊居卑, 辭富居貧, 辭尊居卑, 辭富居貧, 惡乎宜乎? 抱關擊柝.”

23) 『論語』, 『述而』.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24) 『禮記』, 『檀弓』下. “齊大饑, 黔敖爲食於路, 以待餓者而食之, 有餓者, 蒙袂輯屨, 貿貿然來. 黔敖左奉食右執飲, 曰: ‘嗟來食.’ 揚其目而視之, 曰: ‘予唯不食嗟來之食, 以至於斯也.’ 從而謝焉, 終不食而死.”

있다. 『淮南子』에서 “증자는 廉義를 세워 盜泉의 물을 마시지 않았으니 이른바 뜻을 기르는 자이다”<sup>25)</sup>고 한 바 있다.

앞의 두 경우는 생계를 위해서 치욕스러운 일이라도 감행했던 군자를 예로 들었으며, 뒤의 두 경우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도 명분 없는 것은 먹지 않은 이들을 말한 것이다. 이 둘 사이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지만, 명문 사대부가 출신으로 견결한 성품을 지닌 심대운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 왔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모가 홀로 계신 데다 몰락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가문의 대를 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아직도 유배지에 묻혀있는 증조모와 조부의 시신을 이장해오는 중차대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현실적인 여건상 목반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긴 하지만, 사로서의 강한 자의식이 그를 깊은 시름에 빠지도록 만들었다.<sup>26)</sup>

저희 집안은 평소 詩禮와 독실한 의론, 고상한 행실로 사대부의 모범이 되었는데 지금 문득 노예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지금 세상에서 선비들을 다시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마 견딜 수 없는 첫 번째 일입니다. 저는 본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을 좋아하고 章句나 따지는 공부에는 힘쓰지 않았습니다. 古今の 治亂과 得失의 대강, 현인들이 자신을 수양하고 도를 실천하는 큰 방도에 있어서 큰 뜻을 두지 않은 적이 없으며, 아래로 법률·음양·술수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정치

25) 『淮南子』, 『說山訓』. “曾子立廉, 不飲盜泉, 所謂養志者也.”

26) 沈大允, 『白雲文抄』권2, 『與柳君夏元書』. “今僕不得已計有所出, 則有大不堪者, 三焉. 寧潔身守命, 死以全節, 則又有大不忍者, 三焉, 何也? 滌灑之不供, 如前所云云, 一不忍也; 先王考當家門禍變之餘, 崎嶇海之中, 賴天之靈, 不絕如縷, 以至于不肖而窮困不保, 以絕先人之世, 二不忍也; 曾王妣王考, 兩世不及葬, 白骨未收, 死而無所付託, 三不忍也.”

와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그 대략을 이해했습니다. 무릇 선비가 어려서 공부하는 것은 대개 장성하여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뜻을 잃고 욕된 일이나 하면서 명분과 실상을 모두 잃어버렸으니, 이것이 차마 견딜 수 없는 두 번째 일입니다. 타고난 성질이 본래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데 나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움츠리면서 견고 남의 채찍이나 맞으며 의원들과 능력을 다투도록 하니, 이것이 차마 견딜 수 없는 세 번째 일입니다. 슬프다! 죽하는 장차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나가고자 하면 뒤가 걱정되고 왼쪽으로 가려다가도 오른쪽을 돌아봐야 하니, 어디로 가고 무엇을 따라야 하며 무엇이 길하고 무엇이 흉합니까?<sup>27)</sup>

심대운은 현재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문과 덕행을 갖춘 명문 사대부가 출신으로 조상을 욕되게 하여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다. 노예처럼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표현은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는 어려서부터 天人性命을 비롯하여 정치와 교화에 도움이 될 바탕을 두루 익혔는데 정작 그 역량을 펼칠 기회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뜻을 잃고 욕된 일이나 하면서 명분과 실상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말 또한 장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자괴감을 잘 드러낸다. 셋째는 타고난 기질이 고상한데, 이운을 남기기 위해 장사꾼들과 다투고 심지어 채찍까지 맞으면서 견결한 자존심이 무너지게 된 사정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27) 沈大允, 위의 글. “家素詩禮篤論高行, 爲士大夫所矜式, 而忽從奴隸之所恥, 以添辱祖先, 誠無面復見當世之士, 其不堪一也. 僕素好窮理之學, 不事章句之業, 古今理亂得失之大要, 賢哲修身行道之大方, 無不經意, 下至法律陰陽術數之書, 可以裨補治教者, 俱通其畧. 夫士幼而學之, 蓋欲長而行之, 今失志就辱, 名實皆喪, 其所不堪二也. 性本高尚, 而使之屏息側步, 以受人之驅策, 與巫醫爭能, 其不堪三也. 嗟乎! 足下將奈何於僕哉! 將前慮後, 欲左顧右, 何去何從, 孰吉孰凶?”

는 나아갈 바를 잃고 더욱 방황하게 된다.

그러나 이내 “만약에 부모형제가 굶어 죽는데도 구하려 하지 않고 병들어 있는데도 보살피지 않으며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는데 때를 놓치고 제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금수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도 고상한 의론을 좋아하고 스스로 안빈낙도라고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 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요 간특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sup>28)</sup>라고 하여 마음을 다잡는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모로 재주가 많은데도 몹시 곤궁함이 이처럼 심한데 재주를 팔아서 먹는 것을 구하느라고 몸과 이름을 더럽히게 될까 걱정합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저는 지금 곤궁함이 이와 같은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서, 꼭 죽지는 않을 것이므로 기어이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꼭 죽게 될 판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여 죽음을 면하게 된다면, 이 또한 죽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비록 한때의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저는 이미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듣건대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은 능히 경중을 참작하여 선택하고 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고집을 부려 끝끝만 나가고 변통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군자는 곧은 태도를 지키되 작은 신의에 매이지 않는다.”, “자신의 덕을 변통 없이 지키면 흉하다.”, “예의 가벼운 것과 음식의 중요한 것을 비교하면 어찌 음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sup>29)</sup>

28) 沈大允, 위의 글. “若夫父母兄弟凍餓不得救, 疾病不得視, 婚嫁失時, 祭祀闕享, 與禽獸同行, 而顧好爲高世之論, 自以爲安貧樂道者, 僕以爲非人情奸惡也.”

29) 沈大允, 위의 글. “曩者, 或以僕之多方乎技術而窮困滋甚, 慮其術術以求食以累身名者. 僕笑答以爲: ‘若然則幸矣. 吾今困如此, 而且不爲, 自度不必死必不爲. 若必死而爲之以免死, 亦猶愈於必死, 豈非幸邪?’ 此雖一時之戲言, 然今僕既已濱於必死矣. 僕聞智士之行, 貴能參酌輕重而取舍之, 未必固執直行而無變通也. 故曰: ‘君子貞而不諒’, ‘恒其德凶’, ‘以禮之輕與食之重, 奚啻食重?’”

『논어』『衛靈公』의 “군자는 곧은 태도를 지키되 작은 신의에 매이지 않는대[君子貞而不諛]”를 비롯하여 『주역』『恒卦』六五의 “자신의 덕을 변통 없이 지키면 흉하다[恒其德凶]”와 『맹자』『告子』의 “예의 가벼운 것과 음식의 중요한 것을 비교하면 어찌 음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以禮之輕與食之重, 奚啻食重]?” 등의 구절을 원용하여,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극도로 곤궁한 상황에서 명분을 지키다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설파하고 있다. “제가 듣건대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은 능히 경중을 참작하여 선택하고 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고집을 부려 곧게만 나가고 변통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언급처럼, 양반으로서 장사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잃어버린 정체성을 ‘變通’의 논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전 구절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였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伊尹과 呂尙 같은 성인조차 가난 때문에 더럽고 욕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화를 들어 양반 신분으로 장사를 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자 하였다.<sup>30)</sup>

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곧바로 뜻이 낮고 행실이 비천하여 스스로 밑바닥에 빠져 있다고 여길 뿐이니, 어찌 좋은 평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제가 절의를 굳게 지키다 죽게 되면 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명분과 의리가 서지 않고 언행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혼자 비분강개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옛날의 청렴하고 절의 있는 사람과 똑같이 행하려고 든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중서는 “이익을 구하기에 급급한 것은 보통 사람의 일이다.”고 말했는데,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지금 제가 치

30) 沈大允, 위의 글. “是故伊尹負鼎與俎, 呂尙賣販鼓刀, 百里飯牛, 公孫牧豕……伊呂聖人也, 其餘數子者, 亦皆瑰偉卓犖傑出之士, 過僕數人, 猶未足以相當. 然尙不能以潔身安貧, 其涉世如此其汙辱也, 何況僕之不得已邪?”

육스런 처지에 있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내 쫓아도 다시 돌아오는 파리 떼나 개처럼 구차하게 행동하고 노비처럼 비굴하게 굴면서 먹고 살기를 피하는 자라도 간혹 영예와 치욕의 다름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 구덩이가 파여 있고 뒤에는 맹호가 기다리고 있으며 사방이 짙은 안개에 쌓여있어 어디로 갈 지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sup>31)</sup>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기에 천하의 신뢰를 얻어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sup>32)</sup> 그런데 심대운의 경우 본인이 예감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설욕하고 후세에 이름을 전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당시 사람들은 목반과 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 그를 절의가 낮고 행실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비난하였다. 설령 양반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며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추앙되다 이내 곧 잊혀질 뿐이다. 그렇다면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돌아오는 파리 떼나 개처럼 구차하고 노비처럼 비굴하게 굴면서 먹고 살더라도 榮辱을 구별할 수 있는 이가 있다. 이는 심대운 자신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지금 비록 현실적 처지는 구차하여 비굴하게 먹고 살지만 내면에 견결한 사의식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명분과 실상의 괴리에서 온 심각한 내적 갈등을

31) 沈大允, 위의 글. “然假使僕, 直守節以斃, 人亦誰復見信? 今以名義未立, 言行不表, 而慷慨攘臂, 欲自同於古昔廉節之人, 亦已難矣. 董生有言: ‘皇皇求利者, 庶人之事也.’ 僕乃今信之. ……今僕之辱, 不亦宜乎? 雖然視彼蠅營狗苟·奴顏婢膝, 以謀食者, 或有問乎榮辱之分, 必有能辨之者. 僕今者習次在前, 後有猛虎, 昏霧四塞, 莫適所道.”

32) 沈大允, 위의 글. “子胥吹簫行乞, 君子聽其剛戾忍垢, 季布髡鬚爲奴, 時論多其摧剛爲柔. 此二者者, 素所樹立, 有以取信天下, 固結其心而不疑. 故躬操下流之行, 而名益顯也.”

변통의 논리로 극복해 보려 했지만 더욱 더 진퇴양난에 빠져든 셈이다. 그래서 유하원에게 깊은 고뇌를 토로하고 진심어린 조언을 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하원은 “도는 꼭 고정된 길이 있는 것이 아니요, 선비에게도 고정된 행실이 있는 것이 아니니, 때에 맞춰 中에 처한다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할 것이 없겠거늘 선생께서는 어찌 걱정하십니까?”<sup>33)</sup>라고 하며 심대운을 위로하였다. ‘隨時處中’이라 하여 때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삶을 위협할 수준의 극심한 곤궁을 겪고 있다면 목반을 만들어 팔고 약을 팔아서라도 노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양반에게는 명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실상을 우선시할 수도 있음을 말하여 실의와 좌절에 빠진 심대운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때에 맞춰 中에 처하는 것’은 심대운이 제기한 변통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심대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며 위로인 셈이다.

#### 4. 맺음말: 조선후기 지식인의 생업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의 의의

이상에서 19세기 지식인 白雲 沈大允(1806~1872)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생업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의의를 서술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극렬하고 잦은 정쟁에서 패하여 몰락하거나 여러 대 동안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을 때,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삶을 위협할 수준의 극심한 곤궁에 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고 무기

33) 柳夏元, 『夏元答書』, “夫道無常經, 士無常行, 隨時處中, 莫不令名, 子何患焉?”

력하였다. 생계를 위해 상공업에 종사할 경우,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유와 혼인 및 관로 진출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의 士로서의 자의식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곤궁한 상황과 당시 심경을 피력한 글은 종종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구체적 대응책이 드러난 기록을 찾기도 쉽지 않다. 사의 체면상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심대운이 직접 목반을 만들어 팔고 약을 파는 등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글은 중요하다. 비록 몰락한 처지이긴 하지만, 문한과 문벌을 갖춘 명문 사대부가 출신으로 생계를 위해 직접 상공업에 종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심대운은 증조부 沈錕(1702~1755)이 을해옥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일당 전제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과거를 통한 관직에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서울을 떠나 안성에서 공방을 차려 목반을 만들어 팔았다. 그 과정에서 땀 흘리며 일한 대가로 노모를 봉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에 대해 기쁨과 자부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과 달리 깊은 내면에서는 명문 사대부가 출신으로 조상을 욕보이고, 국가와 민을 위해 갈고 닦았던 학적 역량을 펼칠 기회가 없으며, 곳곳하고 고상한 기질에 이운을 남기기 위해 장사꾼들과 다투는 등의 행위로 견결한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의식을 상실한 것에 대한 고통과 내적 갈등을 겪었다. 자신만 생각한다면 목숨을 끊어 견결한 의지를 지킬 수 있겠지만, 노모가 홀로 계신데다 몰락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가문의 대를 끊을 수 없으며, 아직도 유배지에 있는 선조들의 시신을 이장해 오는 중차대한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처럼 명분과 실상이 괴리되어 고민하고 갈등한 심대윤은 경전의 구절을 들고 變通의 논리를 적용하여, 부모 봉양이라는 대의를 위해 목반을 판 자신의 행적을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절친한 후배이자 친구인 柳夏元(?~1843)에게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유하원은 ‘때에 맞춰 중에 처할 것[隨時處中]’을 조언한다. 이는 심대윤이 제시한 변통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친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자 위로인 셈이다. 대의를 위한 변통이며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심대윤의 고민과 갈등은 쉽게 해소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심대윤의 현실적 처지와 내적 갈등이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목반을 만들어 팔고 약을 팔았다 해서 士의 본분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학문과 저술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sup>34)</sup> 즉 새로운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여 인간의 ‘欲’을 긍정하고 남과 더불어 이익을 취하는 ‘與人同利’를 추구하며 나아가 ‘福利’를 주장하였다.<sup>35)</sup> 상업업

34) 沈大允, 『韓國經學資料集成』, 『詩經集傳辨正』, “余於經傳, 在童幼時, 課讀之後, 自以才知淺劣, 不足以通經. 不復開卷者, 且二十年. 過三十四五, 始復返究經傳, 而家貧親老, 又居城闈, 營生酬接, 汨無暇隙. 壬寅病中, 著象義, 五月而畢, 其後至今, 幾二十年間, 每有間隙, 則輒有所著, 獨三禮, 用周年之工, 其餘諸經, 或數十日, 或數月而畢工, 然後在於鶴鳴就寢之際, 風雨客散之暇.”

35) 임형택, 『19세기 西學에 대한 經學의 대응-丁若鏞과 沈大允의 경우』, 『창작과비평』 봄호(통권 91호), 창작과비평사, 1996, 301~305쪽 참조. 임형택 교수는 이 글에서 ‘심대윤의 경학사상은 福利로 요약된다. 복리는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고도의 가치로 설정한 개념으로 福善禍淫의 논리와 연계되어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欲이란 天命의 性이다. …사람이 되어 欲이 없으면 목적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사상의 논리가 性欲說에 의한 人欲의 긍정적 수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는 利의 긍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利가 있는 곳에 다름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남과 더불어 利를 취하는 ‘與人同利’를 추구하고 남과 나의 이해를 저울질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至公之道’를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삼았다. 심대윤의 이러한 논리는 인간과 사회

에 종사한 체험을 통해 학문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신의 인식을 일대 전환시켰으며, 관념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지향적인 방향을 체득하는 실사구시의 학문관을 정립한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학문세계에 투영시켜 자신의 사유양식을 당대현실에 걸맞은 방향으로 전환시켜 갔다.<sup>36)</sup>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생업에 대한 인식과 19세기 몰락 양반인 심대운이 직접 상공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士라는 신분 특성상 먹고 살기 위해 직접 물건을 만들고 장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 글을 통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된 기쁨과 신성한 노동의 가치 발견 및 그 이면에서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士의 정체성 상실로 인한 내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논리적 대응을 모색하는 등 조선후기 한 몰락 지식인의 인간적인 초상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윤리도덕관은 그야말로 현실주의적이며 공리주의적 특징이 뚜렷하다.”라고 한 바 있다.

36) 진재교, 위의 논문, 393쪽 참조.

참고문헌

徐有築, 『林園經濟志』, 보경문화사.

沈大允, 『沈大允全集』, 성균관대출판부.

\_\_\_\_\_, 『白雲遺草』, 임형택소장본.

\_\_\_\_\_, 『韓國經學資料集成』, 성균관대출판부.

柳壽垣, 『迂書』,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張漢宗, 『禦睡錄』, 국립중앙도서관.

鄭基雨, 『雲齋遺稿』, 국립중앙도서관.

崔瑄煥, 『顧問備略』, 국립중앙도서관.

韓益相, 『自娛』, 규장각한국학연구원.

『論語』.

『孟子』.

『禮記』.

『淮南子』.

김성재, 「崔瑄煥의 『顧問備略』해제」, 『어시제 최성환의 고문비략』, 사람의무늬, 2014, 1~428쪽.

김준형, 「閱淸齋禦睡錄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서유구 저, 안대회 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1~404쪽.

이우성·임형택 역, 『이조후기 한문단편집』(중), 일조각, 1978, 1~466쪽.

이우성, 「實學思想의 開化思想으로의 轉廻: 최성환의 『顧問備略』을 中心으로」,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37, 대한민국학술원, 1998, 227~230쪽.

임형택, 「19세기 西學에 대한 經學의 대응-丁若鏞과 沈大允의 경우」, 『창작과비평』 봄호(통권 91호), 창작과비평사, 1996, 301~305쪽.

\_\_\_\_\_, 「심대운전집 해제」, 『심대운전집』, 성균관대출판부, 2005, 4~5쪽.

장병한, 「심대운 경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5, 1~188쪽.

진재교, 「심대운의 사회적 처지와 학문 자세」, 『한문교육연구』 1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373~397쪽.

ABSTRACT

A Study on the Cognition of Vocation and Practical Actions  
by Intelligentsia in the Late Choseon Dynasty

- With Focus on the Baek-Woon(白雲) Shim Dae-Yoon(沈大允) in the 19th Century

Son, Hye-ri

This paper examines intelligentsia in the late Choseon dynasty who were not financially independent by studying and cultivating morals engaged in commercial and industrial circles focused on Baek-Woon(白雲) Shim Dae-Yoon(沈大允, 1806~1872).

It is a very important document that Shim Dae-Yoon engaged in commercial and industrial circles such as making wood block and selling medicine to maintain his aged mother and two younger brothers. Because it rarely remains document which is related to working commerce and industry as a noble family, even though they fall in their circumstances. Shim Dae-Yoon expressed of joy on supporting his family and rediscovered value of working for his hard work he did.

But, he experienced an inner conflict because of cold eyes and lost of identity as classical scholar. To overcome, he insisted on a logical argument called Byeontong(變通).

It is meaningful that this paper reveals intelligentsia in the late Choseon dynasty who had practical actions and inner conflict to earn a scant living.

**Key Words** Intelligentsia in the Late Choseon Dynasty, Shim Dae-Yoon(沈大允), Vocation, Cognition, Practical Actions, Conflict

논문투고일 : 2014. 10. 27  
심사완료일 : 2014. 11. 24  
게재확정일 : 2014. 12. 3

